

전남 동부권

여수문화원장 연임규정 철폐 논란

원장·이사 중임 제한 삭제 시도 ... 반발 여론에 포기

여수문화원 이사회가 원장과 이사 등의 임기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정관을 의결했다가 반발 여론이 일자 총회 안건 상정을 포기했다. 4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문화원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현재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는 정관을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 같은 이사회 의결은 한국 문화원연합회가 제정한 '표준정관'과 배치돼 논란이 가중됐다. 한국 문화원연합회의 표준 정관은 원장과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차례만 중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8년이 최대 임기이다.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 문화원 등이 이 표준 정관을 토대로 원장과 이사의 임기를 정하고 있다. 여수지역 일부 문화계 인사들은 "현재 원장과 이사진 등이 장기집권을 위해 무리하게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문화원 관계자는 "전국 228개 지방문화원은 각기 독립 사단법인으로서 자체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다만 표준정관을 준용할 뿐이다"며 "지자체장이 3선까지 허용되는 것을 감안해 문화원도 이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내용은 4일 총회 의결을 거친 뒤 전남도지사 허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총회에 임기 관련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무산됐다. 현재 여수시 문화원 조모(71) 원장은 제4대와 5대 원장을 연임하고 보궐 임기 2년까지 10년 동안 문화원을 이끌어 왔고 오는 12월 말 법정 임기가 끝난다. 조모 원장은 "지역 문화사업은 연속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해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오는 11월 차기 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 문화원연합회는 전국 228개 문화원마다 정관이 다르고 표준 정관을 준용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됨에 따라 오는 9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맛 축제'

6~7일 월등면사무소 광장

명품 복숭아를 맛볼 수 있는 행사가 순천에서 열린다. 순천 월등 복숭아의 참 맛을 알리고 생산 농가의 자긍심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제9회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월등면사무소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저렴한 가격으로 맛 수확한 복숭아를 맛볼 수 있도록 다채롭게 진행된다. 축제기간 동안 축하쇼와 뽀리댄스,



각설이 공연, 시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공연을 비롯 복숭아 수확체험, 복숭아 깎기, 먹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다. 또한 월등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복숭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품종전시와 복숭아 직판장도 운영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메탄가스로 전기 생산

순천 하수처리장 예산 절감

순천시 하수처리장이 처리장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설비를 가동시켜 지난해 145만6440kwh, 올해 현재 123만4355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하수처리장 사용 전력의 21%를 충당하면서 지난해 1억2000만원, 올해 현재까지 8600만원 등 총 2억6000만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산단 내년까지 3500만㎡ 공급 3.3㎡당 50만원 이하로 분양

전북도는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3.3㎡당 50만 원 이하로 분양할 계획이다. 도는 2012년 전국적으로 3500만㎡의 산업단지가 공급됨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3.3㎡당 최대 5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조성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공사 장기화의 원인인 보상 지연과 문화재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산단 지정 전에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문화재 시·발굴 대상 지역은 미착공 단계에서부터 토지수용을 인정한 방침이다. 특히 도는 내년 이후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산단에 대해 기존의 기반시설 활용 정도와 입지선정의 적정성, 예상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양가격이 이보다 높으면 신규 지정

을 미룰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분양을 앞둔 정읍 첨단과학산단과 김제 지평선 산단, 완주 테크노 산단, 고창 산단 등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 요인을 분석해 분양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산단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유상공급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공사비 절감요소를 분석해 원가를 줄이고 공사 지연에 따른 부대비용 상승을 막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 등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산단을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설계에서 제작, 톡톡 튀는 아이디어

군산서 대학생 자작車 대회

17~19일, 1200명 참가

대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설계·제작한 자동차 레이싱 등 자웅(雌雄)을 겨룬다. '2011 대학생 자작(自作) 자동차 대회'가 오는 17~19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군산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이륜차 엔진(125cc)을 이용해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직접 설계·제작해 가속 및 주행 경기를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70개 대학 120개 팀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승팀(KSAE Grand Prix)에게는 상금 400만원과 부상 등 많은 혜택이 지원된다. 경기는 ▲오프 로드(Off Road) 타입 ▲시범경기인 학생 포뮬러(Student Formula) 부문 ▲기술 부문(기술 아이디어 및 디자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작 자동차 대회를 통해 자동차공학기술 습득과 자동차 공학 관련 우수 인재를 유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자동차 문화 소개와 관광차원의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남원 광한루원에 수문장 등장

남원시 광한루원 입구에 관복을 입은 수문장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원시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문장 이벤트 행사를 마련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전 북



남원시 광한루원 입구에 관복을 입은 수문장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원시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문장 이벤트 행사를 마련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진안 세계 아토피 엑스포 연다

2014년 10월에 마이산 관광단지 일대서 피톤치드 체험관 운영·환경포럼 등 개최

오는 2014년 10월에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일원에서 '아토피' 세계 엑스포가 개최된다. 진안군은 균형 회의실에서 아토피 세계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 최종보고회를 갖고 2014년 10월 '진정한 안식처, 아토피 없는 공간, 인류의 신(新)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열기로 했다. 기본계획을 보고한 경희대 관광산업연구원 김철원 원장은 아토피 엑스포는 전시와 교육, 이벤트, 체험, 학술 등 6개 분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주제전시로 아토피 정보관과 치료관·생활관·아토피프리 클러스터 특별전시관·진안 특별전시관을

운영하며 교육은 아토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협회·연구기관·병원 등 아토피 산업과 관련된 기관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체험행사로 피톤치드 개선 효과를 위한 체험관 운영과 아토피에 좋은 발효 식품·천연염색·연고·비누·피톤치드 화분 만들기 등이 열린다. 학술세미나는 서태평양 알레르기 학회 진안포럼과 환경보건센터협의회 환경성 질환포럼, 대한 아토피부염학회 학술대회, 대한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학술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주시 방치된 폐정화조 수해 방지 시설로 재활용

전주시가 방치된 폐정화조를 수해 방지 시설로 재활용한다. 전주시는 오수관 설치로 폐쇄된 아파트내 정화조를 정비해 폭우 때 물을 저장하고 이후에는 조경이나

청소 용수로 쓰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 결과 전주시내 392개 아파트 가운데 폐정화조가 있는 곳은 모두 108곳으로 4만여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이다. 정화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5~6년전부터 오수관 설치가 보편화하며 대부분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여성일자리 센터, 여성교육센터서 위탁운영

전북도는 오는 10일 준공하는 '여성일자리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재)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선정했다. 여성일자리센터는 총 165여 원을 들여 전주 덕진 종합경기장 내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총면적 4300㎡)로 건립했으며, 육아나 가사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의 재취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 육아 보육 등을 지원한다. 심정연 여성교육문화센터장은 "여성들의 직업교육 훈련과 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와 문화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시, 하반기 '스포츠 바우처' 선착순 모집

전주시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체력향상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스포츠 바우처' 참여 대상자를 오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만 7~19세 청소년 및 청소년이다. 올해는 별도의 서류없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해경, 백중사리 기간 선박안전 주의보

군산 해양경찰서는 "백중사리 기간인 2~5일과 12~16일, 28~31일 해안가의 바닷물 수위가 연중 최고수준인 7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선박들의 안전운항과 각종 시설물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백중사리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백중(음력 7월15일)을 전후한 3~4일간 해수면이 연중 최대로 높아지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20~50cm 이상 높아져 바닷물 높이가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임실 운암~순창 풍산면 4차로 연말 개통

임실군 운암면~순창군 풍산면(국도 27호)을 잇는 4차로가 예정보다 1년 앞당겨져 연말 개통된다. 전북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3년부터 4400여 원을 들여 도로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이 구간 32km의 2차로를 4차로 확장해 올해 연말 개통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1시간30분 걸리던 전주에서 순창까지 1시간이 덜 갈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뽀배 타고 청정 갯벌 누빈다

6~7일 벌교 '천상갯벌' 축제

'벌교 천상갯벌축제'가 6~7일 이틀간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어촌체험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천상갯벌'을 테마로 공식행사와 다양한 갯벌레포츠 경기, 공연·전시·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는 첫날인 6일에 국제 다문화가정 레저뽀배 경기(사진)와 인기 아이돌 그룹이 대거 출연하는 천상갯벌 콘서트, 불꽃쇼 등이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7일에는 벌교갯벌을 뽀배를 이용해 달리는 '제1회 전남도지사배 레저 뽀배대회'를 비롯해 갯벌 단체 씨름, 갯벌단체축합, 갯벌 단체 줄다리기 등 갯벌레포츠경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에어 바운스 체험, 녹차머드 뷰티체험, 갯벌머드 작품만들기, 뽀배타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 편백나무 자르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또 부대행사로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갯벌 속 보물찾기와 갯벌영화상영, 국악한마당, 향토음식장터존, 지역특산품 코너 등도 운영된다. 특히 '제1회 도지사배 레저 뽀배대회' 경기 종목으로는 ▲레저뽀배 일반부 ▲레저뽀배 전문부 ▲전통뽀배 대 레저뽀배 레이스 대결 등

3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레저뽀배 일반부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남·여로 각각 나뉘어 실력을 겨룬다. 보성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로 청정갯벌에서 뽀배를 즐기며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원한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kim0686@

곡성 농악인들 '한마당 굿'

죽동 등 10개 농악단 참가

곡성군은 관내 농악인의 화합의 장 마련과 농악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8월 한달간 3회에 걸쳐 '제4회 올해 곡성 농악인 한마당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죽동농악단 등 관내 10개 농악단이 참가한다. 이번 공연은 6일 죽동 생활체육공원을 시작으로, 13일 옥과 월파관, 20일 석곡 코스모스 축제장에

서 각각 펼쳐진다. 곡성군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신명과 감동을 맛볼 수 있는 한마당 잔치에 많은 주민이 참석해 시원한 농악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잊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 죽동농악은 호남좌도 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전남 대표적인 농악으로 손꼽힌다. 마당뽀배나 당산굿과 같은 마을굿에서 시작해 인근마을에 걸경을 하는 들당산



과 날당산굿, 판굿까지 전체를 전승하고 있다. 1998년 남도문화제에 출연해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고, 1999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죽동마을에는 풍물강습에 맞도록 정비된 풍물전수관이 있어 수시로 강습을 하면서 농악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